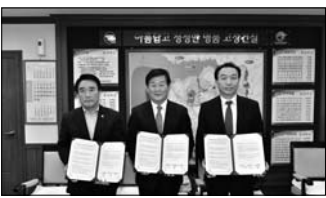


지역 매아리



고창군-한빛원자력본부  
사택매입 추진 업무 협약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난 3일 고창 지역에 한빛원자력본부 외부사택을 유치하기 위해 고창군, 고창군의회와 한빛원자력본부간에 한빛원자력본부 고창 지역 사택매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한빛원자력본부가 30세대의 사택을 고창지역에서 매입하고, 고창군 사택에 거주하는 한수원 직원과 가족의 주소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며, 고창군은 직원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사택 매입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한빛원자력본부는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고창지역 사택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봄 축제기간  
행사장 내 영업소 위생점검

정읍시 보건소는 벚꽃축제를 비롯한 봄 축제기간 행사장 내 한시적 영업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는 벚꽃축제와 정읍예술제, 자생화 전시회와 자생차 페스티벌 등 축제가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린다.

보건소는 이 기간 운영되는 행사장 내 한시적 업소에 대한 빈틈 없는 위생점검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위생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물의 적정 보관 상태 ▲남은 음식 사용 여부 ▲보건증 소지 여부 등 개인위생 상태 ▲식품보관 기준 준수와 냉장 보관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보건소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행사장 주변 무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오염된 식품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 업소를 이용하고 구입한 식품은 즉시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3대 실천요령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령 친화도시' 만들기 온힘

### 정읍시, 50억원 투입 8대 영역별 30개 실행과제 추진 등 기반 구축 총력

정읍시가 올해 '고령 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심혈을 쏟고 있다.

시는 일찌감치 고령사회에 대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14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후 고령친화사업단을 구성하고 매년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응, 즉각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제1회 정읍시 효사랑 걷기 행사나 다양한 고령친화 관련 교육, 노인 상담사 양성 등이 대표적 사업들이다.

특히 시는 지난 2016년 WHO가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 4대 목표와 8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4대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생동감 있는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 ▲공존 위한 존중·소통 ▲맞춤형 지역자원과 보 건복지다.

또 8대 분야는 ▲도시환경 ▲교통 ▲주거와 주택 ▲사회 참여 ▲준중과 사회통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정보 제공 ▲지역 지원·보 건복지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8대 영역별 30개의 실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무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고 현재 교통과 등 10개 부서에서 실행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화장실 재정비 사업 등 고령 친화형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 농촌마을, 행복 나눔 재능기부 추진 사업과 관련, 6개 마을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전북과대학교와 함께 '1% 재능 나눔으로 101%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슬 로건으로 고령안구가 많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 이·미 용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27개 마을 2018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관련해 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인정 받았다.

2014년 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2015년 농촌재능나눔 최우수 단체 선정 (대통령상)과 함께 2017년 농촌재능나눔사업 평가에서 37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적이고 우수한 농촌재능나눔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읍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올해 3월 현재 25.2%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친환경농업 활성화 · 영농철 농가 편익 도모

###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시간 조정...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급

고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운영시간을 1시간 앞당겨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급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군은 매년 유용미생물 5종(BM,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400톤 공급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배양하여, 매주 화·수요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장은 2015년 400톤 생산규모 시설을 신축하여 자동화된 설비와 청결한 환경에서 배양

된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500톤 이상 공급하여 목표대비 120%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유용미생물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토양개량, 유해 가스제거, 작물 성장촉진 등과 축산분야에서는 가축 음용수 소 배합사료 첨가제, 축사 환경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산 분야에서는 장어양식장 수질개선, 유해가스제거용 등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올해도 많은 농가와 군민들의 이용으로 500톤, 3천여 농가 이상에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창군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고창군의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생산을 위해 농업에 유익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100여명 대상 벼 육묘기술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벼 육묘기술 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또 육묘 농기계 연사회도 함께 진행됐다.

기술센터는 건강한 모를 기르고 철저한 키다리병 방제 요령 등을 안내하는 한편 노동력 절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과 함께 연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작

물보호 담당 박성희 씨는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소독 요령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파종량과 모판 수를 줄이는 농법을 제시했다.

또 육묘 적재기와 이송기, 세척기 등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효과가 큰 육묘 농기계 연사회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병해충과 생리 장애로 매년 육묘에 실패하

는 농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육묘 기술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이 육묘 실패에 따른 농업인들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종자 소독과 육묘 관리 요령 등을 담은 전단지 등을 제작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펴는 한편 농가 기술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참뽕 · 천년의 쑤새 쌀 국내 최고 브랜드로 '우뚝'

###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국가브랜드선정위원회, 브랜드인터내셔널 글로벌경쟁력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18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산업·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의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며 부안참뽕은 오디·뽕 부문에서 천년의 쑤새는 쌀 부문에서 각각 1위로 선정됐다.

지난 2008년 사탕수수이었던 양잠업을 부안군이 기능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선정 뽕 기반 시설에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부안군 대표 관광지인 부안누에타운과 참뽕연구소 및 가공연구센터, 참뽕체험장, 전북도 잡입시합치 유치 등을 조성해 부안뽕 6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오디·뽕잎·누에를 이용한 술, 음료, 뽕잎 차, 스낵류, 과자류, 디지털, 미용액, 입욕제, 뽕 비빔밥, 뽕 바자락 죽, 누룽지, 식혜, 장아찌, 김치, 오디삼계탕 숙잠유인, 숙잠주, 그라주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부안의 관광산업과 연계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부안 쌀 공동브랜드 '천년의 쑤새'는 품질 좋은 쌀을 제공하려고 토양관리부터 적기수확까지 까다로운 10여 가지의 재배기술을 담은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생산에서 포장단계까지 위생요소를 관리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체系的인 GAP 인증을 받은 쌀만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2008년 '천년의 쑤새' 브랜드를 개발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간직지는 2200ha의 농지에 천년의 쑤새 쌀 단지를 조성해 지난해 1만 1100톤을 생산·출하, 17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시상식에서 "부안참뽕과 부안 쌀 천년의 쑤새를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해줘 감사하다"며 "이 번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계기로 부안참뽕과 천년의 쑤새가 대한민국 대표 명품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안의 대표적인 양잠산업 발흥 육성과 6차 산업 농본도시 명품브랜드 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기자

##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현장교육 일환 정읍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방문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 이하 KoLFACI) 사업 담당자들이 지난 3일 정읍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정읍APC)를 찾았다.

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에서 주관하는 KoLFACI 중남미 8개국 사업담당자 20여명이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정읍APC를 방문, 수확 후 관리 기술 시연 참관과 함께 실습을 가졌다.

이들 방문단은 정읍APC의 수출 토

마토 선도 유지를 위한 수확과 이후 관리 기술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 과정을 둘러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관생 대표 다니엘 사보리오씨(코스타리카)는 "의미있는 경험이었다"며 "특히 수출 작물의 수확 후 관리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기술로,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소방서,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청명·한식 기간 중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원)가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소방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청명·한식을 맞이해 상묘객과 상춘객이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돌발 등 화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어 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부안소방서는 내소사 입구와 내변산 탐방센터에서 대기 근무를 하며, 산발 대응지원 및 구조체계 협력 강화차원에서 내변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